퀀틴전시 플랜

[다음주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기는 펀더멘털

[투자전략팀]

정해창 / Strategist Jr.
haechang.chung@daishin.com

이경민 / Strategist
kyoungmin.lee@daishin.com

주간 전망

3월 주주총회 & 프리어닝 시즌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시험대

- 3월 증시를 흔들고 있는 지정학적 이슈의 영향은 정점을 지나는 모습이지만 다음주 굵직한 경제지표 발표가 부재하여 유가 향방에 따른 증시 등락은 불가피. 사태 초반 작전 기간으로 제시된 4주차 도달. 출구전략이 가시화되면 증시는 다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변수는 분쟁의 지속보다 호르무즈 해협의 에너지 공급망 복원
- 3월 FOMC에서도 지정학적 충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핵심이슈. 파월 의장은 기자들의 집요한 질문을 피하며 지정학적 사태를 전망에 반영하지 않는 모호성을 유지. 다만 FOMC 이후 연준 위원들의 블랙아웃 기간이 해제되면서 증시 변동성을 증폭시킬 가능성 염두. 점도표에서 금리인하 전망을 늦춘 위원 다수, 파월도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시인. 지금까지 금리 인하를 주장하던 월러 이사도 3월에는 금리 동결에 찬성. 주요 위원들의 매파적 입장 변화 가능성을 시사
- 24일 S&P 글로벌에서 발표될 미국 3월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예비치에도 관심. 중동발 에너지 쇼크가 실물 경제에 투영된 이후의 실물경제 영향을 보여주는 첫 번째 지표가 될 것. 유가 급등과 물류 병목이 본격화된 시점의 기업 심리변화 확인
- 국내 증시는 이번주 삼성전자에 이어 다음주 23일 LG전자, 네이버, 24일 고려아연, 25일 SK하이닉스, 26일 현대차와 SK 등 주요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집중. 지난해부터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이후 이뤄지는 첫 주총시즌은 한국 기업들이 '주주 자본주의'로 향하는 방향성에 호응하는지 평가받는 글로벌 시험대가 될 것. 주요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선과 자본 효율성(ROE) 향상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할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가속화 전망
- 1분기 프리어닝 시즌에 접어들며 국내증시의 시선은 다시 펀더멘털로 향할 것. 프리어닝 시즌이 빨라지면서 코스피 선행 EPS는 어느새 654pt까지 상승. 이는 지난해 연말 409.9pt에서 59.5% 레벨업된 수치. 같은 기간 코스피는 전 고점 기준 49.8%, 현재 기준 약 38%의 상승을 시현. 선행 PER은 오히려 8.81배로 내려앉으면서 극심한 저평가 구간에 위치. 실적 개선이 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실적 장세 진행 중
- 2008년 이후 코스피 하단 지지선을 형성한 PER 8배 구간은 5,200선으로 그 이하는 Deep Value 구간. 다음주도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이슈들이 산적해 있으나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이 견고함에 집중. 변동성은 오히려 전략적 비중 확대 기회라는 판단
-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고, 26년 이익 개선이 예상되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도주 비중확대 기회. 최근 조정 국면에서 낙폭과대, 실적대비 저평가 업종인 2차전지, 소프트웨어, 건강관리, 화장품/의류 업종 또한 순환매 차원에서 주목

퀀틴전시 플랜 자료는?

퀀틴전시 플랜 자료는 대신증권 리서치 소속 **퀀트**, **전**략, **시**황 애널리스트의 현재 시장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담아낸 자료입니다. 매일 이슈에 대한 분석과 시장 리뷰, 확인해야 할 데이터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실적 장세 진행 중. 지정학적 이슈와 주가 등락 속 선행 EPS 상승 추세 지속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KOSPI, 업종별 수익률 추이

주요 지수	현재가	등락율(%)						
	(p)	1D	1W	1M	3M	6M	12M	YTD
KOSPI	5,763	-2.7	3.2	1.5	43.3	67.3	119.3	36.8
에너지	6,407	-0.6	-1.6	-2.8	33.2	47.5	82.9	34.5
화학	4,804	-2.6	0.1	-7.1	5.6	20.5	31.2	7.4
비철,목재	8,243	-4.2	-3.5	-4.5	17.1	39.6	64.2	16.5
철강	2,418	-3.1	-2.8	-10.5	12.4	15.6	9.4	11.4
건설,건축	2,452	0.0	8.9	15.1	59.5	61.3	111.6	61.3
기계	12,407	-0.2	4.4	6.2	34.8	58.2	190.3	38.5
조선	9,879	-2.9	-5.0	-2.7	10.7	16.4	87.7	13.3
상사,자본재	4,997	-2.0	0.3	7.0	53.3	61.9	141.2	43.9
운송	1,921	-1.2	-0.7	-9.3	10.2	7.0	23.4	9.0
자동차	16,803	-3.5	0.6	-1.7	43.7	79.3	91.0	41.7
화장품,의류	5,531	-1.2	2.5	-3.8	8.2	5.2	35.1	12.8
호텔,레저	2,205	-0.2	1.9	-10.2	-3.9	-8.3	27.4	-4.6
미디어,교육	816	-2.5	0.3	-10.8	5.2	10.5	35.0	3.5
소매(유통)	2,352	-1.6	1.5	-10.0	12.9	17.7	42.0	16.7
필수소비재	7,023	-1.3	0.4	-9.2	0.7	-3.2	22.2	3.1
건강관리	10,528	-2.7	-1.6	-13.3	-2.1	19.4	18.2	-0.5
은행	3,244	0.3	2.7	-9.4	21.6	27.6	81.2	21.2
증권	3,530	-3.8	-1.0	-11.7	57.3	57.3	139.0	57.3
보험	12,767	-2.7	2.1	-2.2	25.5	27.1	75.7	22.9
소프트웨어	6,793	-2.5	-0.1	-10.1	-3.0	-9.3	11.1	-5.2
IT하드웨어	2,066	3.2	16.4	25.1	51.6	95.9	160.7	50.8
반도체	33,856	-3.9	7.4	8.6	87.5	163.8	285.6	63.0
IT가전	2,343	-2.0	-0.6	-3.6	21.8	46.2	51.6	26.5
디스플레이	706	-3.2	-1.3	-5.0	-1.5	-10.0	20.6	0.1
통신서비스	457	-2.2	0.2	-7.3	22.5	23.5	29.8	24.3
유틸리티	1,509	-2.3	1.3	-15.7	6.8	34.5	92.3	11.1

주: Top 5, Bottom 5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KOSPI, 업종별 YTD 수익률

글로벌 밸류에이션 테이블

권역/국가	P/E			P/B			ROE(%)			12M fwd EPS Revision		
	2026년	2027년	12M fwd	2026년	2027년	12M fwd	2026년	2027년	12M fwd	1W	1M	속도
전세계	18.8	16.3	18.1	3.2	2.9	3.1	17.2	17.9	17.4	1.1	1.6	▲
선진국	20.0	17.4	19.2	3.5	3.2	3.4	17.5	18.3	17.8	1.0	1.2	▲
신흥국	12.8	11.0	12.3	2.0	1.8	2.0	15.7	16.1	15.8	1.1	3.2	▲
북미	21.9	18.7	20.8	4.6	4.1	4.4	21.0	21.6	21.1	0.2	2.0	
유럽	15.6	13.9	15.2	2.2	2.1	2.2	14.4	15.0	14.6	1.0	-1.0	▽
퍼시픽	16.9	15.4	16.7	1.8	1.7	1.8	10.7	11.1	10.8	0.6	0.5	▲
라틴	11.1	10.1	10.8	2.0	1.8	1.9	17.9	18.1	18.0	4.9	4.2	▲
EM 유럽	9.4	8.2	9.1	1.3	1.2	1.3	14.1	14.6	14.2	1.7	-1.1	▽
EM 아시아	13.3	11.4	12.8	2.0	1.8	2.0	15.4	15.9	15.5	0.7	3.5	
선진 시장												
S&P 500	21.9	18.7	20.8	4.7	4.1	4.5	21.3	22.0	21.5	0.2	2.5	
NASDAQ	26.8	21.7	24.9	6.3	5.2	5.9	23.4	24.0	23.6	0.2	3.2	
프랑스	15.2	13.7	14.8	1.9	1.8	1.9	12.6	13.1	12.7	0.2	1.0	
독일	15.1	13.1	14.4	1.7	1.6	1.7	11.6	12.5	11.9	-0.5	0.1	
영국	13.9	12.5	13.6	2.2	2.0	2.2	15.8	16.3	15.9	0.1	2.3	
일본	18.3	16.6	16.5	1.8	1.7	1.7	10.1	10.5	10.5	0.0	1.8	
신흥 시장												
중국	12.1	10.5	11.7	1.4	1.3	1.4	11.6	12.1	11.7	0.4	0.0	▲
인도	20.6	17.9	20.6	3.1	2.8	3.1	14.9	15.4	14.9	-0.4	0.8	
한국	8.6	7.3	8.3	1.8	1.5	1.7	20.9	20.1	20.7	3.3	12.4	
대만	19.4	15.9	18.4	4.0	3.5	3.9	20.5	21.8	21.1	0.3	2.1	
브라질	9.9	9.1	9.7	1.8	1.7	1.8	18.3	18.4	18.3	3.7	5.0	▲

기준일: 2026.03.18
자료: I/B/E/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글로벌 밸류에이션 테이블(Z-Score, ○: 2년 평균 기준, ●: 5년 평균 기준)

권역/국가	PE	Z-Score									
		-2이하	-2 ~ -1.5	-1.5 ~ -1	-1 ~ -0.5	-0.5 ~ 0	0 ~ 0.5	0.5 ~ 1	1 ~ 1.5	1.5 ~ 2	2이상
전세계	18.1					○		●			
선진국	19.2					○		●			
신흥국	12.3					○	●				
북미	20.8				○		●				
유럽	15.2							●	○		
퍼시픽	16.7								○	●	
라틴	10.8									○●	
EM 유럽	9.1									○	●
EM 아시아	12.8				○	●					
S&P 500	20.8				○		●				
NASDAQ	24.9		○		●						
프랑스	14.8						●	○			
독일	14.4							○●			
영국	13.6									○●	
일본	16.5								○	●	
중국	11.7						○●				
인도	20.6		○		●						
한국	8.3			○●							
대만	18.4							○	●		
브라질	9.7									○	●

기준일: 2026.03.18
자료: I/B/E/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글로벌 주요국 EPS Growth(% YoY)

권역/국가		2026년	2027년	2028년	27-28년 평균
권역(대)	전세계	18.1	15.2	11.8	13.5
	선진국	15.3	15.0	12.2	13.6
	신흥국	33.5	15.7	9.1	12.4
권역(소)	북미	16.8	16.7	13.3	15.0
	유럽	12.9	12.1	10.8	11.4
	퍼시픽	10.6	10.0	7.7	8.8
	라틴	13.7	9.3	12.3	10.8
	EM 유럽	15.6	14.3	7.7	11.0
	EM 아시아	39.0	17.2	8.9	13.1
선진국	S&P 500	16.1	17.2	13.5	15.3
	NASDAQ	33.4	23.3	17.3	20.3
	프랑스	16.1	10.9	10.5	10.7
	독일	12.3	15.6	12.3	14.0
	영국	9.0	11.0	10.3	10.6
	일본	9.4	10.5	11.3	10.9
신흥국	중국	12.2	14.8	14.0	14.4
	인도	17.9	15.1	13.3	14.2
	한국	131.7	18.5	-2.4	8.0
	유럽	12.9	12.1	10.8	11.4
	브라질	15.4	9.6	14.9	12.2

기준일: 2026.03.18
자료: I/B/E/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 조 1 항 5 호 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정해창, 이경민)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